

민족의 靈山 太白山 민박촌 운영



태백시

1. 태백시 개황

1. 위 치

- 태백시는 북측과 동측은 삼척시, 서측은 정선군·영월군, 남측은 경상북도 봉화군과 접한 고원분지형 도시로서, 도로는 영동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도 31, 35, 38 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철도는 영동선과 태백선이 우리시에서 교차하고 있음
- 지형학적 위치에서 살펴보면, 민족의 영산 태백산(해발 1,567m)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1,625km 백두대간의 중추에 해당하며, 원산 추가령곡에서 부산 다대포 물운대까지 이어지는 태백산맥의 주봉이 기도 함
또한, 우리시 매봉산에서 낙동정맥이 시작되어 역시 부산 물운대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 남한의 양대강으로 불리는 한강(498km)과 낙동강 1,300리(520km)가 우리시에서 발원(검룡소와 황지연못)하고 있으며, 동해안으로 흐르고 있는 오십천 또한 삼수령에서 시작되고 있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동, 서, 남해안으로 흐르는 강이 모두 우리 태백에서 발원되어 태백시의 지형학적 의미는 아주 크다고 할 것임

2. 民族의 靈山 太白山

- 태백산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과 태백시 문곡소도동 그리고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국토의 종산이자 반도 이남의 모든 산의 모태가 되는 뿌리산으로, 1989년 5월 13일 17.44km² 면적에 대하여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음
- 산 정상에 둘레 27.5m, 높이 2.4m, 좌우폭 7.36m, 앞뒤폭 8.26m의 타원형 천제단은 후한서, 삼국사기 등에 상고시대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으로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며, 지금도 매년 개천절이면 태극기(太極旗)와 칠성기(七星旗)를 꽂고 주변에는 33천기(天旗)와 28수기(宿旗)를 세우며 9종류의 제물을 갖추어 제를 올리고 있음
- 태백산이 위치한 곳의 지명인 소도(蘇塗)는 고대 삼한시대에 천신(天神)에 제사를 지내던 지역의 명칭으로서 국법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죄인이 이곳으로 도망하여 오더라도 그를 돌려보내거나 잡아갈 수 없을 정도로 신성(神聖)시 되어 오던 지역으로,
- 지금도 주변 계곡일대에는 치성을 드리는 기도처로 사용된 크고 작은 적석탑과 석단들이 있으며, 함부로 짐승을 잡거나 나무를 꺾는 일을 금하고 있음. 매년 신년초에는 많은 사회 저명 인사들이 눈 덮인 태백산에 올라 한민족의 얼과 정기를 새기며 한해를 설계하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음
- 한편, 구한말에는 의병장 신돌석 장군이 백마를 잡아 천제를 올렸고, 일제 때는 독립군들이 천제를 올린 성스러운 제단으로서 산꼭대기에 이같이 큰 원형의 제단이 있는 곳은 국내에서 유일한 곳임



민족의 영산 태백산

II. 태백산민박촌 조성배경

1. 조성배경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생존권 회복과 함께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우리시가 대체 산업으로서 선택한 것이 관광산업임

- 당시는 폐광의 후유증으로 폐광잔해가 채 정리되지 않은 도심환경과 새로운 직장을 찾아 태백을 떠나는 이직자들의 이삿짐 행렬로 태백시의 존립마저 불확실한 위기의 시기로서, 지역 재력가는 물론 국내의 어느 기업체도 태백에 투자하기를 꺼려하던 회생불능 그 자체가 태백의 자화상이었음
- 이즈음, 시에서는 떠나는 사람은 붙잡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겐 정주의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외지인들에겐 태백으로 찾아오게끔 하는 이른바 “질서, 친절, 청결 3대 시민운동 전개”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고원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시작한 사업이 태백석탄박물관 건립과 태백산민박촌 조성사업임
- 그러나, 주민들은 희망과 기대의 이면에 관광객이 찾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었으며, 숙박업자들 사이에선 행정기관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 또한 표출되고 있었음
- 시에서는 이에 따른 이해를 돕고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가 당면한 현실과 관광산업에 대한 비전, 그리고 대표적 관광상품 개발 및 이들의 기호에 맞는 수용대책 마련, 또 이러한 관광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수차례 설명회를 통하여 이해를 구하는데 성공하였으며,
- 마침내, 1994년 석탄박물관과 민박촌 착공에 이어 1997년 5월 27일 동양 최대의 규모로 완공되고 관광객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시민들의 의식도 차츰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시의 관광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음
- 태백산민박촌은, 이상과 같은 현실과 꿈이 교차하던 시기에 시에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한 역작으로서 개관이후 학생, 청소년 및 직능단체와 직장 동호인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시 관광산업 발전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장이 라고 할 수 있음

2. 숙박업소 현황

- 태백석탄박물관이 개관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태백을 찾는 관광객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으며, 1995년 숙박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1개의 호텔과 55개의 여관, 42개의 여인숙이 등록되어 전체 1,259개의 객실에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5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었

경영우수사례

으며, 특히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여관의 경우 평균 17개의 객실에 불과하여 단체관광객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음

● 1995년 숙박업소 현황 ●

구 분	계	호 텔	여 관	여인숙
개 소	98	1	55	42
객실수	1,259	30	935	294

- 1995년 이후, 시에서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을 대체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숙박업소 또한 전체적으로 여인숙이 감소한 반면,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여관업이 45%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태백산민박촌 운영이 지역 숙박업소의 시설개선을 선도했음은 물론 지역경기를 크게 활성화시키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음

● 2004년 숙박업소 현황 ●

구 분	계	호 텔	여 관	여인숙	태백산민박촌	고원자연휴양림
개 소	94	1	75	16	1	1
객실수	1,663	44	1,446	88	73	12



민박촌 조성전



현재의 태백산 민박촌 전경

3. 조성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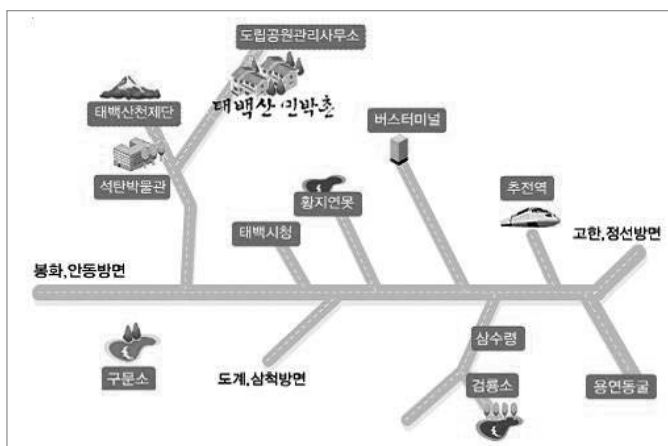
- 우리시 대표적 관광자원인 태백산과 석탄박물관 일원에 시 직영 숙박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이용객들로 하여금 공신력을 갖게 함

- 각종 체육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단, 수학여행단,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안정적 관광 수용 대책 확보 및 재방문을 제고
- 여름철 모기 등 유해곤충이 없으며 열대야가 없는 고원의 한랭지역(해발 830m, 여름평균 19℃)으로서 피서객들을 위한 민박형 숙박시설로 적격지
- 관광·스포츠산업을 지역발전의 제일 모토로 삼고 있는 가운데 이에 걸맞는 숙박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대외적 홍보효과 거양
-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공공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역개발 참여의욕 고취
- 안정적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발전 원동력 제공

III. 태백산민박촌 현황

1. 일반개요

-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331-1 태백산도립공원 내
- 부지면적 : 8,934.8m² ○ 건축면적 : 1,898.86m²(연면적 3,558.76m²)
- 사 업 비 : 4,370백만원(국비 2,493 도비 954 시비 923)
- 사업기간 : 1994. 7. 15 ~ 1997. 9. 19(3년 2개월)



2. 시설현황

- 숙박시설 : 15개동 73실(지상 2층)
- 관리실 및 상가 : 1동(지상 2층)
- 가스 공급실 : 1동(지하 탱크시설 10톤)
- 기타 : 주차장 100면 및 주변 관광자원

3. 주변환경 및 부대시설

1) 태백산도립공원내

- 자연환경

명 칭	위 치	시설내용
태백산 도립공원	경북 봉화, 강원 영월과 경계(17.44km)	1989. 5.13 태백산도립공원 지정 1992. 7.11 태백산도립공원 개소
천제단	해발 1,561m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28호(1991.10.23) 녹니편마암의 제단 : 둘레 27.5m, 높이 2.4m
장군봉	해발 1,567m(최고봉)	둘레 20m, 높이 2m 장군단 제단이 있음
단종비각	망경사 ~ 천제단	조선 제6대 단종임금을 추모한 비각
문수봉	해발 1,517m	태백산 이름 유래. 산 정상 각력암 바위
용 정	해발 1,470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나는 샘물
사 찰	태백산 일원	망경사, 유일사, 백단사, 청원사, 만덕사
석장승	당골광장 입구	강원도 민속자료 제4호(1995. 3. 9)
주목군락지	태백산 정상 부근	태백시 시목으로 태백산에 2,805주 자생
당골계곡	태백산~당골광장	연장 3km. 사계절 차가운 계곡물이 흐르고 있음

○ 투자시설

시설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시설내용
소도 집단시설	1990~1993	5,977	상가(24개소), 숙박시설, 주차장(5개소), 공공시설 등
석탄박물관	1994~1997	15,230	7개 전시실, 체험궤도, 야외전시장
사계절썰매장	1993~2004	481	슬로프 2면 (60m×120m), 관리동
민박촌	1994~1997	4,370	15동 73실
인공암벽장	1994~2003	124	H=14m, B=3.6m, 4면
단군성전	1992	628	단군성전, 요사채, 삼문 등
청소년수련관	2002~2004	3,999	수련동(1동 14실), 야외공연장
야영장, 산책로 등	2003~2004	1,250	야영장, 산책로 2km, 등산로 6개 코스
건강 지압보도	2003	48	L=169m, B=2m

2) 태백시 관내 및 주변지역

- 주요 관광지 :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한강발원지 검용소, 전국 최고지대의 용연동굴, 천연기념물인 태백 구문소 고환경 및 침식지형과 장성 하부고생대 화석산지,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금대봉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
- 레저·스포츠시설 : 모터스포츠 태백준용서킷, 종합경기장 및 2개의 보조구장, 함백산 태릉선수분촌, 대덕산 고지대훈련장, 고원실내체육관 등
- 주변지역 : 50분 거리에 동해안과 2시간 거리에 유교문화 유적인 봉화와 안동, 그리고 내국인 전용카지노 강원랜드가 20분 거리에 위치

4. 관광객 동향

1) 태백시 동향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를 거쳐 1995년 12월 29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태백을 찾는 관광객은 무박 당일코스의 태백산 등반이나 한강과 낙동강 발원지 탐사, 그리고 광산 갱내체험 등 극히 한정된 분야에 머물고 있었음
- 어찌보면 관광객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태백이 당시 폐

경영우수사례

광에 따른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선택한 것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었고, 더구나 성공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현실상황이 너무나 참담하였기 때문에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관망만 하고 있는 분위기였음

- 그러나, 태백석탄박물관의 개관과 태백산눈축제, 태백산쿨시네마페스티벌 등 사계절 축제와 각종 이벤트의 개최, 용연동굴의 개장, 모터스포츠 경기장인 태백준용서킷 개장 그리고 절골 마을관리 휴양지 정비 및 각종 체육시설의 조성 및 도로와 폐광 흔적지 정비 등을 통하여 태백은 관광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고원의 기후적 조건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성공, 겨울의 환상적 설경은 물론 여름의 시원한 날씨에 매료되어 매년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1995년 태백을 찾은 관광객이 36만여 명에 그쳤으나 1997년 석탄박물관 개관의 해엔 100만명을 넘어섰고 3년 후인 2000년에는 200만명을, 그리고 2004년에는 연간 3백만명을 돌파하여 서학레저단지와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가 조성되는 2007년경에는 5백만 관광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시에서는 5백만 관광시대에 대비하여 시민들과 함께 질서·친절·청결 3대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관광객 수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2) 태백산 도립공원 관광객 동향

- 1992년 7월 11일 태백산도립공원 개장과 더불어 우리시는 관광객이 다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음
- 물론, 관광이란 용어까지 생소하기만 한 폐광의 도시라 변변한 숙박시설 조차 없었음
- 그러나, 5년여의 준비 끝에 태백석탄박물관과 민박촌이 개관됨에 따라 1997년 이후 연간 50만명 이상의 유료관광객이 꾸준하게 태백산을 찾고 있으며,
- 전체 관광수입 중 매년 80% 이상을 태백산이라는 관광자원을 통하여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임

5. 태백산 민박촌의 특징

- 체류형 관광을 위한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숙박시설임

- 태백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으며 숙박가격이 저렴함
- 다양한 콘도형 민박을 갖추고 있어 취사가 가능함
- 온라인 상태에서 예약, 취소 및 상담은 물론 시설탐방까지 가능함
- 태백산도립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최고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음
- 청정 강원 최고의 여행지로서 볼거리는 물론 사계절 축제 및 이벤트 개최로 체험형 즐길거리, 무공해 먹거리가 풍부함
-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야 할 만큼 서늘한 날씨로 모기와 선풍기가 없는 전국 최상의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
- 환상적 설경의 태백산 등반, 쿨시네마 영화제 관람, 철쭉제 등반 등 각종 이벤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음
- 백두대간의 중추, 민족의 영산 태백산에서의 숙박으로 민족의 정기를 이어 받고 복을 기원함으로써 마음의 안위를 찾을 수 있음

IV. 태백산 민박촌 운영상황

1. 운영개요

- 운영기간 : 1995년 말부터 일부개관 지속운영
 - 1차 운영(3동 22실) : 1995. 7.29
 - 2차 운영(12동 51실) : 1997. 7.24
- 운영주체 : 태백시 직영(5명 배치; 주간 4, 야간 1)
 -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 청원경찰 1명, 환경미화원 1명, 상용직 1명
- 운영대상 : 태백산민박촌(15개동 73실)
- 업 종 : 일반숙박업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이용방법 : 365일 연중무휴, 인터넷과 전화로 예약접수 처리

2. 년도별 운영상황

1) 운영추이

- 1995년 1차로 3개동 22객실을 준공하여 40천여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이래 1997년 완공과 함께 매년 5억여원 안팎의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16.3%에 불과한 우리 시로서는 민박촌 운영수입이 시 재정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것임
- 한편, 1997년 우리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IMF사태와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그리고 2002년과 2003년에 발생한 태풍루사와 매미피해 등에 따른 국민의 여행심리 위축, 그리고 자가용이나 열차여행 등을 통한 무박일정의 여행 등으로 연간 이용을 증가는 아직까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 지금까지 운영추이를 살펴보면, 숙박은 4.1명의 가족 또는 팀이 동행하여 함께 숙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일 평균 125.5명이 30.6실의 객실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지역별로는 태백시민이 8.3% 이용한데 반하여 외지인이 91.3%나 이용하고 있어 대다수 이용계층은 외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은 전체의 0.4%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외국관광객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38.3%가 40대로 나타나 태백산을 등반하는 중년층의 동호인 모임 등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30대가 26.2%, 50대가 17.8%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13%와 4.7%임
- 또한, 계절별로는 겨울 태백산 등반과 여름철 피서를 위하여 1, 2월과 7, 8월에 집중적으로 찾고 있어 객실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3, 4월과 11, 12월에는 상대적으로 이용빈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관광자원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명, 실)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이용객	4,403	12,659	24,554	47,401	47,445	43,168	51,714	55,032	49,846	47,384
이용실	833	2,809	6,278	12,460	11,149	10,310	12,047	12,705	12,275	12,126
수 입	40	124	256	475	518	467	553	584	548	526
지 출	28	89	122	167	198	185	189	146	281	188
순수익	12	35	134	308	320	282	364	438	267	338

2) 년도별 운영수입

- 태백산도립공원의 수입은 크게 입장료 수입(석탄박물관과 통합운영)과 주차장 수입, 사계절 썰매장 운영수입, 민박촌 시설이용료 그리고 매점임대료 등으로 나누어 짐
- 민박촌 시설이용료는 전체 도립공원 수입의 36.7%인 4,091백만원으로 개관이후 연간 524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기간 중 태백시 전체 세외수입의 0.7%에 해당하는 것임
- 태백산민박촌은 앞으로, 시설·환경개선과 함께 운영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고원의 관광·레저·스포츠 도시로 비약적인 변모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시의 오늘을 감안할 때 민박촌 운영수입은 매년 크게 신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관광동향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태백을 찾는 관광객들은 무박 또는 1박 등 짧은 일정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가급적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시스템 개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특히, 쿨시네마페스티벌 개최기간 중에는 최적의 여름철 숙박조건으로 체류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겨울철 눈축제 기간 중에는 태백지역의 혹독한 겨울추위로 당일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태백산눈축제 개최기간 중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저렴하고 따뜻한 객실제공과 함께 전통차 또는 군고구마 제공 등의 특별 서비스를 통하여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민박촌 수지분석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태백산민박촌을 이용한 총 숙박객은 384천명, 수입액은 4,091백만원이며, 1997년 완공이후에는 367천명, 3,927백만원의 숙박객과 수입금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1인당 10,713원, 1실당 평균 4.1명의 동반자가 43,950원의 숙박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4가지 유형의 객실 중 15평 가족형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개관 이후 10년차인 금년 말에는 4,757백만원의 총수입을 예상(2005년도 수입목표 : 666백만원)하고 있어, 마침내 민박촌 시설비 4,370백만원(국비

경영우수사례

2,493 도비 954 시비 923)을 상회하는 수입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민박촌 가동율을 1%(267실의 객실 추가이용) 향상시킬 경우, 11,710천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시에서는 인터넷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국 단위의 1일 1실 추가예약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실정임

3. 민박촌의 시설투자

- 지금까지 투자된 시설투자비는 231백만원으로서 1999년부터 침구류 및 도배, 장판 교체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기타 콘도형 민박으로서 취사 도구와 TV 등 교체작업이 이루어졌으나, 2003년도에는 관리실 리모델링 과 장애인 편의시설에 44백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었음
- 한편, 지난해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계온도탑과 인터넷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21백만원이 투자되어 여행 마니아들의 욕구만족을 위한 본격적 시설개선 사업에 돌입하였으며,
- 금년도에는 최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여행중에도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고객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휴게실 PC방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
- 향후에도, 펜션 등 고급민박과의 경쟁에 우위를 확보하고 이용객들을 위한 맞춤형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에 사업 우선순위를 둘 것임

4. 향후전망

- 현재, 태백은 1995년부터 구상하였던 각종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또 일부는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국민들이 갖는 태백에 대한 인지도는 크게 높아 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민박촌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음
- 또한, 금년 상반기부터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태백산도립공원 접근도로망이 준공되고, 주차시설 또한 확충됨에 따라 이용객의 만족도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 2001년 이후 매년 추진하여 온 시설개선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예약 및 예약상황통보(SMS 문자서비스 및 전자메일 발송)서비스 등으로 전국 각처로부터 안정적이며 투명한 예약이 가능해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현재 우리 태백시는, 과거 고산지대의 각종 악조건을 고원관광 레저스포츠 도시의 최적의

입지조건으로 전환하여 오히려 자원화 하는데 성공하고

-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38호선 국도의 확포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경북 영주방면에서의 국도 31호선 확포장 공사 또한 추진이 확실히 되는 가운데, 태백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 서화레저단지(골프장, 스키장) 조성,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구문소 관광단지 조성, 풍력발전단지 조성, 스포츠크구 지정, 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각종 현안사업이 속속 그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 향후, 태백산민박촌의 이용객은 매년 5 ~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입 또한 매년 58 ~ 117백만원씩 신장할 것으로 보여, 시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한여름철 성수기의 객실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고객만족을 위하여 천혜의 자연자원을 배경으로 한 제2의 민박촌 개념의 태백고원자연휴양림(2001.11~2005.6)을 개장하여, 올 여름엔 태백산민박촌과 함께 태백시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대자연의 품속에서 모기와 열대야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음
- 이상과 같이, 태백산민박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행정기관에서 건립한 숙박업소로서 지금도 주변의 상가와 상호 공존의 협력관계로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가족 또는 소규모 그룹단위의 여행마니아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V. 사이버 홍보

1. 민박촌 홈페이지 운영

- 운영목적 : 이용객 편의도모 및 이용료의 안정적 관리
- 운영권자 : 태백산민박촌 자체운영
- 구축일자 : 2005년 1월 1일
- 사업비 : 7,000천원
- 홈페이지 주소 : <http://minbak.taebaek.go.kr>

2. 구성내용

- 태백산민박촌 : 민박촌 소개, 특징, 이벤트 안내
- 사이버 답사 : 인테리어, 외부시설, 부대시설 및 VR(동영상)투어
- 실시간 예약 : 종합안내, 예약달력, 예약수정 및 취소
- 태백산 정보 : 태백산 여행, 태백 기상정보, 포토갤러리
- 여행가이드 : 태백 관광지, 축제와 이벤트, 놀거리와 먹거리, 관광지도
- 교통가이드 :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 커뮤니티 : 묻고 답하기

3. 실시간 예약서비스 실시

- 추진배경
 - 변화하는 숙박업 환경에 대응하고 태백산민박촌의 새로운 도약 계기 마련
 -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연중 민박촌 이용편의 제공
 - 객실 사용료 현금징수에 따른 민원발생 및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24시간 교대 근무자의 현금보관에 따른 사고의 미연예방
- 서비스 기능
 - 실시간 예약, 전자결제(카드, 계좌이체) 시스템 연동
 - 예약완료 SMS(문자메시지) 및 E-mail 동시 서비스 제공
 - 24시간 예약 및 이용 상담
- 사전예약제 실시
 - 시설사용 예정일 30일전부터 접수
 - 예약신청 후 36시간 이내에 사용료 입금시 예약성립

4. 온라인 시스템의 효과

- 민박촌을 이용함에 있어 인터넷을 통한 예약을 우선함으로써 과거 연고 및 방문을 통한 예약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원거리 이용객들도 대등한 이용기회를 가져다 줌

- 민박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온라인상에서도 마치 민박촌을 방문한 것 같은 생동감을 주어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
- 관리자측과 비대면 상태에서 예약, 입금 및 환불, 예약상황 통지 등 첨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용객 시간절약 및 편의도모
-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시스템 운영으로 여행지에서의 각종 정보습득은 물론 민원사항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이용객 만족도 증대
- 이용 후, 불편사항 및 느낀 점 등의 글을 투명하게 올릴 수 있어 다른 이용자들로 하여금 민박촌 선택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운영자 측에서는 더욱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게 됨

VI. 맺음말

- 민박촌 건립 당시 우려하였던 바와 같이, 일각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민박촌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민간 사업분야에 대한 침해는 아닌가 하는 지탄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고 보겠으나, 1994년 당시 태백시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도 변함없는 특수한 지역적 환경을 접하고 나면 우리시에서 민박촌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물론 당위성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은 지역민들의 적극적 협조 아래 운영되고 있음
- 당시, 열악한 교통망과 관광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심어주기엔 역부족이었으며, 시에서는 탄광도시에서 관광·체육도시 건설을 천명하고도 숙박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높은 물가 등으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미흡하였던 관계로 장기적 수용대책의 일환으로 저렴하고 신뢰성을 갖춘 다양한 규모의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였던 시기였음
- 이러한 배경 속에 건립된 태백산민박촌은 지금도 여전히 각계각층의 이용객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태백시 행정에 대하여 또 다른 믿음을 주는 하나의 창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음
- 한편, 지난달에는 스포츠 시즌을 맞이하여 선수 및 임원들이 보다 편안하고 부담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음식·숙박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체육선수 숙박 편의제공을 위한 인증 및 인증서 수여식”이 거행되어 우리의 전통문화인 『덥 문화』를 실천

경영우수사례

하기로 한 바 있으나,

- 이러한 지역민의 자율적 참여의식 또한 태백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태백산민박촌의 건립정신과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인 것임
- 우리시에서는 최근 펜션과 같은 고급형 민박을 선호하는 이용객 욕구에 부응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하여, 최적의 자연 환경조건의 특징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민박촌의 시설 및 환경개선에 주력할 것이며, 친절과 미소, 서비스 등 능동적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한 개설하여 추진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에도 만전을 기할 것임
- 또한, 금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이용객 확보에 총력을 다함으로서, 민족의 영산 태백산 민박촌을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 사업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